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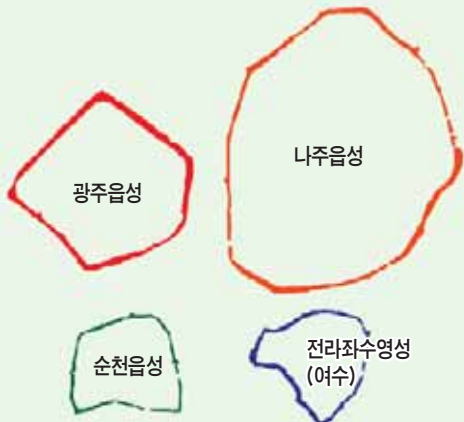
# ‘항일의병 군수 살해사건’ 후 해방까지 근대화 소외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전남편)

5. 일제에 항거하다 배척당한 '나주'

읍성크기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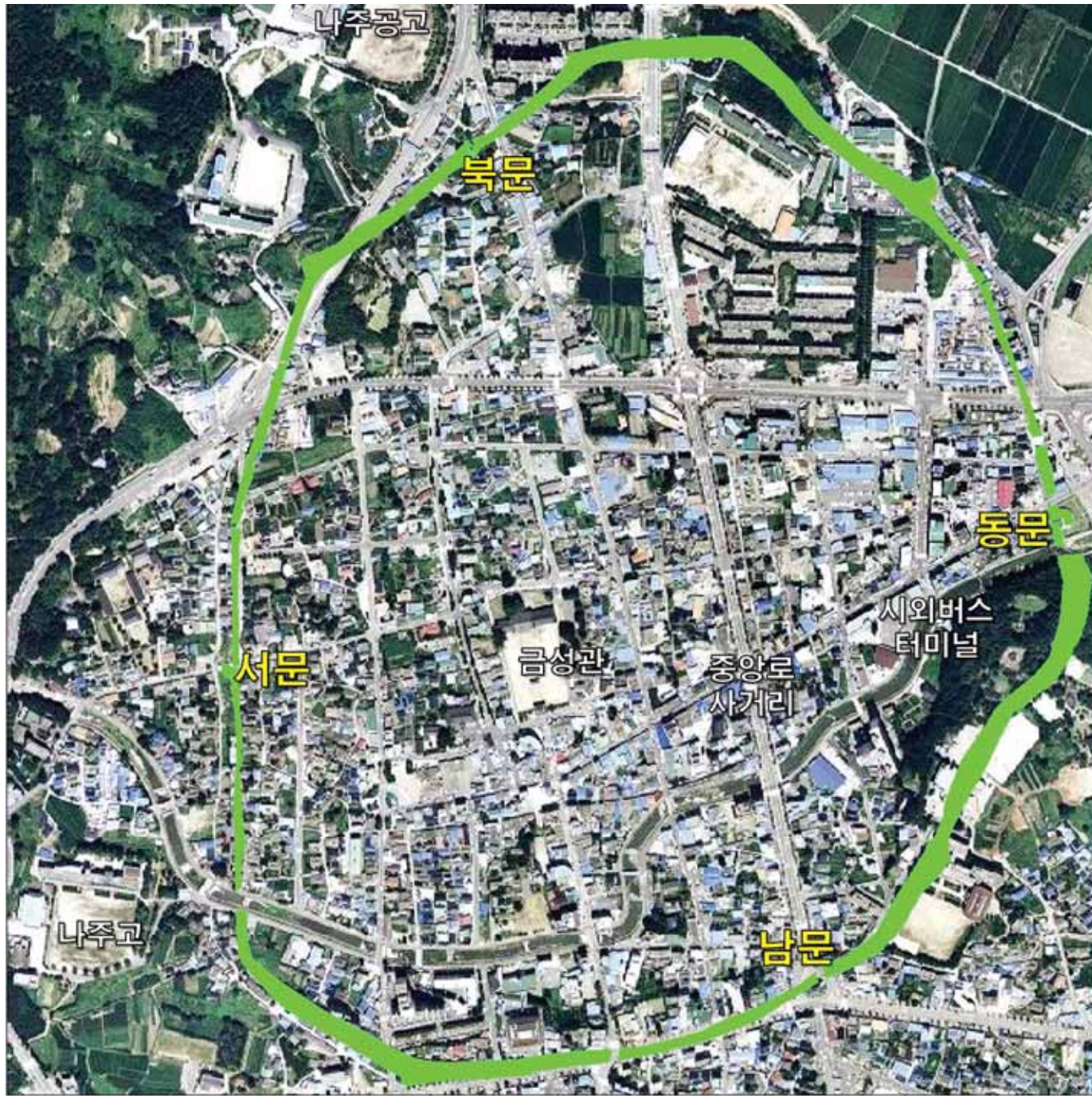
일제는 통감부(1906~1910)를 설치한 후인 1907년 성벽처리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 핵심도시에 자리한 읍성을 철거하기 시작했으며, 1910년대 나주읍성을 비롯해 광주읍성, 순천읍성 등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들 성벽은 대부분 도로로 변했다.



1910년대 나주 남평시장 전경. 남평군은 일제에 의해 단행된 1914년 부군폐합 조치로 나주군에 병합된다. 1913년 당시 남평군에는 6400여 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1914년 부군폐합을 앞두고 작성된 나주시가지도면.



이번 시리즈 취재팀은 지금의 위성지도에 옛 나주읍성을 복원했다. 나주읍성은 당시 전남도 내 가장 규모가 큰 읍성이었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나주는 가장 큰 도시였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터(북원예정)

1896년 8월3일까지 전남의 대표 도시는 나주였다. 전라도의 명칭도 전부의 대표 도시 전주와 이 나주의 첫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전광도, 즉 광주가 그 자리를 대신한 시기는 영조 4년(1728)부터 영조 13년(1737)까지 단 10년간이었다. 전라도는 태종 13년(1413)부터 1896년 8월4일 칙령 제36호로 전라북도라 전라남도라 갈라졌을 뿐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주가 광주보다 큰 도시였다는 징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읍성의 크기를 들 수 있다.

이번 시리즈 취재팀은 지역에서는 최초로 광주는 물론 나주, 순천, 여수 등의 도시를 찾아 일제강점기 당시 지적도를 근거로 읍성의 면적을 구해 비교했다. 일제는 강제병합 후 바로 토지조사사업(1911~1917년)에 착수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당시까지도 도시 중심부에 자리한 성곽은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 당시 기록된 지적을 복원해 그 면적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들 읍성 내 면적은 나주읍성이 83만9967㎡, 광주읍성 39만4652㎡, 순천읍성 15만5271㎡, 전라좌수영(여수) 14만284㎡로 집계됐다. 나주읍성이 광주읍성보다 2배 이상 컸다는 것이다. 읍성의 크기는 곧 읍성 내 시설의 크기 및 종류, 거주인구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조선왕조가 나주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1914년 전남도의 부군폐합 전 나주의 인구는 10만9175명(2만2223호)으로, 제주군(17만4611명, 3만7939호), 무안군(13만73명, 2만4703호)에 이어 세 번째였다. 하지만 광주는 7만9099명(1만6737호)로, 해남, 순천, 화순, 보성보다도 인구가 적었다.

그러나 일제가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던 189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는 일순 바뀌었다.

1914년 전남도의 부군폐합 전 나주의 인구는 10만9175명(2만2223호)으로, 제주군(17만4611명, 3만7939호), 무안군(13만73명, 2만4703호)에 이어 세 번째였다. 하지만 광주는 7만9099명(1만6737호)로, 해남, 순천, 화순, 보성보다도 인구가 적었다. 그러나 일제가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던 189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는 일순 바뀌었다.

## 한·일 병합 전 호남 중추도시 자리매김 면적 84만㎡로 광주 2배·인구 전남 3위 의병 봉기후 영산포 일부 제외 쇠락의 길

자리매김하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 유림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주에서 국포를 살해하고 상투를 자르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항거가 진압된 뒤 1945년 일제가 물러간 시점까지 나주는 여전히 근대화에 따른 어떠한 혜택도 입지 못했다. 국가기록원에도 일제 강점기 나주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모두 범죄 관련 기록이었다.

다만 개항항구였던 목포에서 내륙을 연결하는 뱃길의 종착지였던 영산포만은 일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일부 개발됐다. 농공은행 등 근대건축물이 들어서고 일본인 가족들도 집중됐다.

유일하게 취재팀에게 입수된 나주 관련 자료는 1923년 8월1일 나주군이 발간한 '나주군세일반'이다. 이 서적에 따르면 당시 나주군은 1914년 남평군을 흡수통합한 뒤 19만2222동리로 구성됐고, 공공기관으로는 군청 1곳, 경찰서 1곳, 지방법원 출장소 1곳, 우편소 3곳, 경찰관주재소 17곳, 역 3곳 등이 있었다.

당시 인구는 13만3901명(남 6만9073명 여 6만4828명), 호수는 2만4387호(2만5315세대)였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13만415명(남 6만7174명 여 6만3241명)에 2만3631호(2만4484세대), 일본인이 3320명(남 1738명 여 1582명)에 741호(800세대), 중국인이 66명 (남 61명 여 5명)에 15호(31세대)를 차지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역시 농림축산업이 11만9692명으로 전체

주민의 90%를 차지했고, 상업 및 교통업 5430명, 공무 및 자유업 2653명, 공업 1610명, 어업 107명 등이 종사하고 있었다.

일본인 교육시설로는 1906년 7월1일 문을 연 영산포공립심상고등학교, 1908년 5월5일 개교한 나주공립심상고등학교 등 5곳이 있었고, 한국인 교육시설로는 1907년 5월20일 문을 연 나주공립보통학교와 3년 뒤인 1943년 1월18일 개교한 남평공립보통학교 등 7곳이 있었다. 이외에도 사설 학술강습회가 있어 550명의 아동을 가르쳤고, 서당도 157곳이 운영돼 1894명이 다니고 있었다. 시장은 모두 9곳이 있어 22만5498원이 거래됐고, 공장은 정미공장, 조면공장, 양조공장, 철공장 등 18곳이 있었다. 1923년도 나주군의 예산은 14만8540원이었고, 공무원 급여(6만6708원), 권업비(2만124원), 토목비(2만699원) 등이 사용됐다.

금융기관으로는 나주금융조합 등 금융조합 6곳과 조선식산은행 영산포지점, 18은행 나주출장소 등 2곳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철도역은 나주역, 영산포역, 고막원역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1915년 나주군청사로 사용됐던 나주객사를 고쳐 부지 3000평에 건평 300평으로 늘렸으며, 오래된 은행나무와 버드나무, 누정, 매화나무 등을 보존해 경치가 뛰어나다는 글도 있다. 또 이 책에서는 나주의 역사적 지위에 대해 "나주는 고래 전주에 대립되는 저명한 대읍으로, 전라도 명칭이 되는 실로 노령산맥의 중심지"라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맥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